

1분기 국내 휴대폰 빅3 '5000만대' 출하

삼성 2900만대 · LG 1560만대 · 팬택계열 493만대

국내 빅3에 의한 1분기 휴대폰 출하 실적이 5000만대에 달했다. 산술적인 계산으로도 연간 2억대 돌파 시대가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작년 빅3에 의한 연간 실적이 1억7000만대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국내 업체들의 실적향상도 있었지만 그만큼 세계 휴대폰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다.

글 | 김종을 기자(모바일타임스)



1분기 내수 휴대폰 시장

1월 휴대폰 시장 : 내수 휴대폰 시장 규모가 나아질 것이란 징조는 1월부터 드러났다. 지난 1월 휴대폰 내수 시장은 137만~144만대 규모였다.

삼성전자는 시장 규모를 144만대로 집계했으며 이중 자사가 69만대 공급으로 47.9% 점유율을 차지했다.

LG전자는 내수 규모를 총 137만대로 집계했다. 이중 27만대를 공급해 점유율이 19.7%를 기록했다.

06년 1분기 내수 휴대폰 시장

(단위 : 만대)

구분	06년 1월	2월	3월	합계
삼성전자	69	60	64	193
LG전자	27	32	28.7	87.7
큐리텔	20	15	13.4	48.4
스카이	15	5.6	13.8	34.4

팬택계열은 시장을 140만대로 잡았으며, 이 중 스카이 15만대, 큐리텔 20만대 등 자사가 35만대를 판매했다.

2월 휴대폰 시장 : 지난 2월 내수 휴대폰 시장은 130만대에 머물러 1월 140만대에 비해 10만대 가량 감소했다.

이는 1월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고물량이 있었으며, 3월로 예정돼 있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기대심리에 따라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이 미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월 내수 규모를 120만대로 잡은 삼성전자는 그 중 60만대를 공급해 점유율 50%를 달성했다.

LG전자는 총 시장 133만대로 집계된 시장에서 32만대를 공급해 점유율 24%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팬택계열은 총 125만대 시장 규모 중 20만 6000(스카이 5만6000대, 큐리텔 15만대)를 공급해 점유율 16.5%를 차지했다.

3월 휴대폰 시장 : 3월 내수 휴대폰 시장은 13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에 비해 10만대 가량 증가한 것. 3월말부터 시작된 단말기 보조금 지급 수혜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휴대폰 내수시장 규모를 130만대로 분석했다. 이중 자사 물량이 64만대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체 물량을 138만대로 집계한 LG전자는 28만7000대를 공급했다고 전했다.

팬택계열은 LG전자와 마찬가지로 내수시장 규모를 138만대로 집계했으며, 이 중 스카이가 13만 8000대, 큐리텔이 13만4000대를 공급, 총 27만 2000대였다고 말했다.

국내 빅3휴대폰 제조사 1분기 실적 (단위 : 만대)

구분	공급량
삼성전자	2900
LG전자	1560
팬택계열	493

1분기 세계 휴대폰 시장

올 1분기 세계시장 휴대폰 출하대수는 2억2900만대로 작년 1분기 1억7400만대보다 무려 5500만대나 많았다. 한 분기에 이 수치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에 따라 2006년 세계 휴대폰 시장은 연간 9억대 돌파를 기정 사실화 했으며, 스트래티지 아날리틱스는 연간 10억대를 조심스럽게 관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트래티지 아날리틱스는 “저가폰 위주의 모토로라 물량 증가는 오히려 수익 악화를 불러 왔다”며 우려를 표명한 뒤 “삼성전자나 LG 전자도 이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키아 : 1분기 7510만대 판매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는 10% 감소했다. 시장 점유율은 자체적으로 35%를 차지했을 것으로 분석했지만 업계 평가는 32.8%였다.

지역별 판매대수는 북미가 84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 아태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 중남미는 61% 증가했다

모토로라 : 1분기 동안 휴대폰 사업 매출은 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억200만 달러로 영업이익률 11%를 기록했다.

1분기 휴대폰 판매 대수는 분기 사상 최고치인



4610만대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시장점유율은 20%였다.

특히 모토로라는 1분기에 브랜드 파워와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유럽·북아시아·중동·아프리카·동남아에서 브랜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2위를 지켜냈다.

삼성전자 :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는 총 2900만대의 휴대폰 판매 달성을 밝혔다. 그동안 분기 실적 사상 최고였던 작년 4분기 2720만대보다 무려 180만대나 많았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으며, 내수 또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자들의 선구매가 이어져 18%나 증가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1분기 실적에 따라 삼성전자는 올해 세계 휴대폰 시장을 9억 1000만대로 잡았다. WCDMA 시장은 작년 4500만대보다 2배 증가한 9200만대가



수출 물량도 18% 증가했다는 것 정도였다.

소니에릭슨 : 소니에릭슨은 1분기에 1330만대의 휴대폰을 출시해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를 이루었다. 전기 대비로는 17% 감소했다.

소니에릭슨은 또한 1분기에 KDDI나 NTT도코모에 각종 신규 모델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하이엔드 모델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평균 판매 가격을 149유로까지 끌어올렸다. **K**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올해 자사 공급 목표량은 1억1500만대이다.

2900만대 공급으로 06년을 기분 좋게 출발한 삼성전자에게도 아쉬움은 남았다. 네트워크를 포함한 통신부분(휴대폰이 절대적인 비중) 영업이익률이 10%에 그쳤다. 평균 13%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미흡한 것.

LG전자 : LG전자의 휴대폰 실적은 삼성전자에 비해 전체적으로 침체였다. 공급량이 전분기 대비 4%, 전년 동기(1110만대) 대비 40% 증가한 1560만대에 달했지만 영업이익 309달러 적자에 영업이익률 -1.7%를 기록하고 말았다.

영업이익 적자와 더불어 LG전자를 침울하게 만들었던 것은 GSM방식 휴대폰 시장에서의 부진이었다. LG전자의 GSM 휴대폰과 WCDMA 휴대폰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각각 13%와 75% 감소했다. 판매량은 각각 510만대 및 50만대였다.

그나마 LG전자에게 위안거리는 CDMA 휴대폰의 내수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37%나 증가했으며,

휴대폰 세계시장 제조사별 출하 대수

(단위 : 100만대)

업체	2005년 Q1	2005년 연간	2006년 Q1
노키아	53.8	264.9	75.1
모토로라	28.7	146.0	46.1
삼성전자	24.5	102.9	29.0
LG전자	11.1	54.9	15.6
소니에릭슨	9.4	51.1	13.3
기타	46.6	197.2	49.8
합계	174.1	817.0	228.9

휴대폰 출하대수 기준 제조사별 점유율

업체	2005년 Q1	2005년 연간	2006년 Q1
노키아	30.9%	32.4%	32.8%
모토로라	16.5%	17.9%	20.1%
삼성전자	14.1%	12.6%	12.7%
LG전자	6.4%	6.7%	6.8%
소니에릭슨	5.4%	6.3%	5.8%
기타	26.8%	24.1%	21.8%
합계	100.0%	100.0%	100.0%